

보험사 RBC비율 '주의보'... 후순위 발행 등 자본확충 나서

1분기 RBC비율 생보사·손보사 모두 하락 RBC 비율 200% 이하 일부 보험사 초긴장

보험사의 RBC비율이 흔들리고 있다. RBC 비율(가용자본/요구자본)은 보험회사 재무건전성을 측정하는 지표다. 이 지급여력(RBC) 비율은 보험권역에 적용되는 자기자본 규제 제도로 보험회사가 예상하지 못한 손실 발생 시에도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책임준비금 외에 추가로 순자산을 보유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 1999년부터 운용 중이던 EU방식의 단순한 지급여력 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2009년 RBC제도를 도입했으며 2년 간 시범 운용 후 2011년 4월부터 본격 시행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RBC비율은 3월 말 기준 249.9%로 지난해 12월 말(257.9%) 대비 8.0%p 떨어졌다. RBC비율의 감소는 생보사 쪽에 더 쏠렸다. 실제 하락 폭은 생보사 9.4%p(267.6→258.2%), 손보사 4.9%p(238.6→233.7%)로 생보사가 손보사보다 2배 가까이 더 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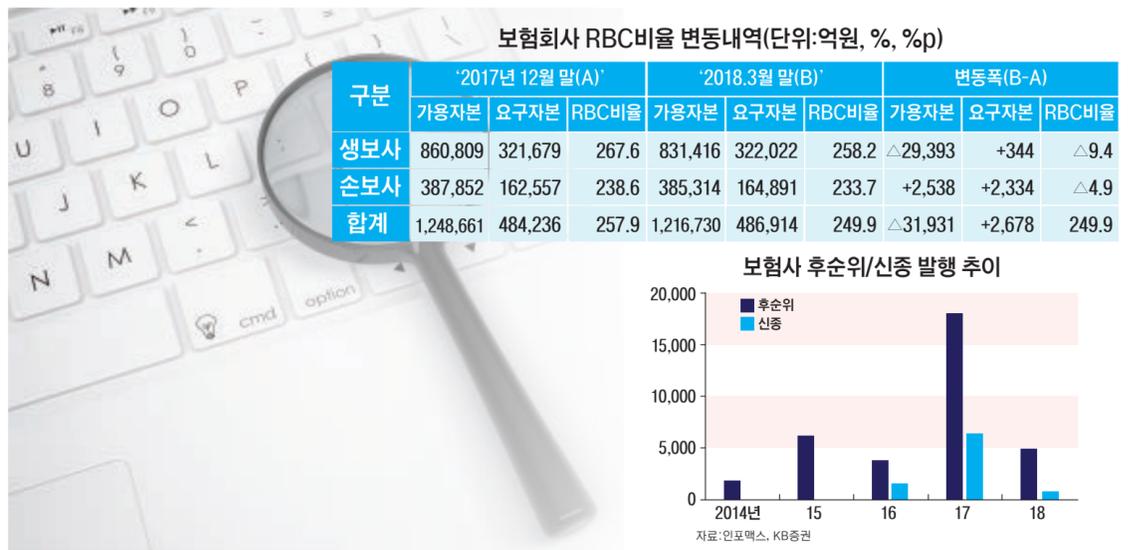
비율로 보면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보험업법상 RBC비율은 100% 이상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생보사, 손보사 모두 통틀어 RBC평균비율은 249.9%로 보험금 지급 의무

이행을 위한 기준 100%를 크게 웃돌며 안정적이다. 문제는 가용자본이 줄며 요구자본은 늘어 RBC 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불확실성도 뒤따른다는 사실이다.

가용자본은 보험회사의 각종 리스크로 인한 손실금액을 보전할 수 있는 자본량이다. 회사는 지난 1분기 당기순이익 실현(2.1조원)에도 불구하고 금리 상승에 따른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감소(4.4조원) 등으로 가용자본이 3.2조원 줄었다. 반면 보험회사에 내재된 각종 리스크가 현실화할 경우 손실금액인 요구자본은 증가세다. 요구자본의 경우 금리 상승에 따른 금리위험액이 약 0.2조원 감소했으나 신용위험액이 0.4조원 늘며 전체적으로 요구자본은 약 0.3조원 증가했다. 금리 변동성이 '가용자본 축소' '요구자본 증가'로 확대되며 RBC비율도 흔들리고 있는 셈이다.

RBC비율의 불안 요소가 확대되며 금융당국도 보험사의 대응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금융원 관계자는 "향후 RBC비율이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일부 보험회사는 자본 확충 및 위기상황 분석 강화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재무건전성을 제고토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겠



다"고 말했다.

RBC비율의 안정성 강화를 위해 보험사들은 크게 금리 민감도 완화, 자본확충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

먼저 금리 민감도 완화다. 금리 민감도는 삼성생명, DB생명, 현대해상, 한화손보, 삼성화재 등이 높은 반면 교보생명, 흥국생명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듀레이션이 길어 금리 변동에 민감한 생보사를 중심으로 금리 민감도 완화 노력이 이뤄졌다. 실제 한화생명, DB생명은 보유 금융자산 계정 재분류 및 금리 노출 익스포저 축소 등으로 적극적으로 금리 민감도를 낮췄다.

자본확충도 RBC비율 제고의 돌파구다. RBC비율을 상향하기 위해 보험사들은 후순위

및 신종자본증권 발행에 발벗고 나서고 있다. 대부분 RBC비율이 200%에 미치지 못하는 보험사들 중심으로 올해 후순위채권을 신한생명 2000억원, 메리츠화재 1000억원, DB생명 800억원, 롯데손보 600억원 등을 발행했다. 신종자본증권의 경우 한화생명 1000억원, 현대라이프 600억원, KDB생명 200억원이다.

최성해 기자 bada@

트렌드세보증론 전세자금대출 연 3.20%

돌려드림론 개인신용대출 최저 연 3.21%부터

퍼스트홈론 주택담보 연 3.08%

미국 기준금리가 10년 만에 2%대에 들어서면서 국내 대출금리도 줄음이 오르고 있다.

“대출금리 조작 조속히 환급하라”

금융당국, 재발방지 개선안 곧 마련

금융당국이 대출금리를 조작해 적발된 은행들에 조속히 환급하라고 주문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출금리 조작 사태와 관련, 공동입장을 내놓았다.

금리를 부당 산출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당국은 “가산금리 부당 부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위·금감원 간에 충분히 협의해 충실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 조치 방안도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KEB하나·씨티·경남은행은 부당 산출된 이자 환급 계획을 밝혔다. 이 은행들은 총 26억7000만원가량의 이자를 더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나은행은 2012년부터 2018년 5월까지 약 6년5개월 간 취급된 대출건수 총 690만건 가운데 총 252건(가계대출 34건, 기업대출 18건, 개인사업자 대출 200건)에서 금리 적용 오류가 발생했다. 피해 고객 193명이 환급받을 이자액은 1억5800만원 규모다.

씨티은행은 2013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취급된 대출 중 일부 담보부 중소기업대출에 신용 원가 적용의 오류로 인해 금리가 과다 청구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당이자를 받은 대출건수가 총 27건이다. 고객 25명이 피해를 봤으며 금액으로는 1100만원 규모다.

경남은행은 고객의 연소득 입력 오류로 인한 과다수취 이자 규모가 최대 25억원 내외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석지현 기자 cake@

우리은행 “e뱅킹 해킹 시도 꺾끔작마”

해당 IP 차단 등 선제적 조치

우리은행은 동일IP로 동시에 부정 접속 시도가 있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당 IP 차단 및 관계기관 전파 등 재발방지를 위한 선제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이번 접속 시도는 간혹 개인들이 외부사이트와 금융회사의 인터넷뱅킹 ID와 비밀번호를 동일하게 사용하는 경우를 악용한 사례로, 우리은행은 동일IP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접속 시도가 일어난 점을 수상하게 여겨 피해예방을 위해 취한 조치다.

이에 우리은행은 금융보안원에 해당 내용을 공유해 관계기관에 전파하도록 함과 동시에 해당 IP를 차단 조치 요청했다. 또 피해사



례 확대를 예방하기 위해 사이버수사대에 수사 의뢰했다.

한편 이날 우리은행은 접속 시도가 일어난 고객들의 비밀번호 변경 요청 등 SMS 발송 및 고객센터 안내를 진행해 금융회사의 인터넷뱅킹 ID와 비밀번호를 외부 다른 사이트와 동일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KB 금융그룹

KB The드림아이종은자녀보험으로
소중한 희망 안아드릴게요!

첫 울음, 첫 응얼이, 첫 걸음마, 첫 입학
얼마나 설레는지
얼마나 행복한지
그 희망 잘 아니까
KB손해보험이 안아드릴게요

아이의 꿈을 지켜주는
KB The드림아이종은자녀보험

**희망을 안다
희망으로 안다**

무배당 **KB The드림아이종은자녀보험**

• 손해보험업의 심의결 제2250호(2018.04.09) • 주소: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17 KB손해보험 빌딩 www.kbinsure.co.kr • 고객센터:1544-0114
• 보험계약 체결 전,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지급 제한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 인수 거절 및 보험료 인상, 보장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 보호 대상 금융 상품의 해약원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KB 손해보험